

“Anyoung”

우송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To be global leaders by the Korean language !



창간호(통권 제1호)

발행인: 김선종

편집인: 최 학

발행일: 2006. 4. 20

Global Woosong에 동참한 유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 선 중
우송대학교 총장

먼저 우송대학교 학생이 된 유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젊은 꿈을 키우려는 그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이 지향하고 있는 Global Leader Global Woosong의 동참자가 된 것이기에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대학생들은 그 사회의 기둥이 될 재목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지탱할 단단한 기둥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에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은이에게 세상은 보는 대로 다가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유학생 여러분들은 이미 세계를 넓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았기에 한국이라는 신천지로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국에서의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고통은 고국이나 이국이나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느 곳에서도 겪게 마련입니다. 결국 내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여 이를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이나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하지 말고 이에 도전하여 이겨내는 만큼 단단한 재목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드는 일입니다. 친구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 내 슬픔까지를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세계를 무대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친구일 것입니다. 우송대학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을 친구로 만날 수 있는 유학 시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유학생 여러분들이 우송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거듭 환영합니다. 우송대학에 지원하던 그 목적을 잊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대학생활이 보람되게 이루어져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간사

한국말, 한국문화 배우기의 작은 디딤돌



최 학
우송한국어교육원 원장

‘到時候再說’

중국 학생들과의 생활을 더 재미있게 해보겠다는 뜻에서 심심풀이 삼아 몇 마디씩 중국말을 외고 있는데, 며칠 전 이런 말을 봤습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그때 가서 보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 말을 참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나중 일이 불확실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1년, 그리고 한국에서도 벌써 한 해 가까이 친하게 지낸 탓에 나한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학생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금씩 더 까다로운 한국말을 익히면서도, 지금의 유학생생활에 약간의 회의를 가지는 경우도 더러 있음을 봅니다. 과연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해서 장래가 보장되는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중 중국에서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있겠는가? 등등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나도 몇 마디 중국말을 배운 김에 그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將來的事到時候再說’.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한국에 유학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유학생생활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빨리 한국말을 제대로 익히는 일입니다. 다른 걱정, 다른 관심은 나중에 가져도 괜찮습니다. 또한 말 배우기는 앵무새처럼 반복 훈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한국말 배우기는 한국 문화 전반을 배우고 익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이 뉴스레터는 우리 학생들의 한국어 배우기, 나아가서 한국 문화 배우기를 도와주는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꿈과 계획으로 가득한 우리 젊은 나날들



채 정 정
중국·경영학과 2학년

시간은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반년 시간이 부지불식간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도 많이 희망차게 했던 보람찬 날들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주위에 낯선 사람들뿐이고 친구도 없는데다 입에 맞지 않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줄곧 허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술을 마셔 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지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꼭 참고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수업방식은 중국과 조금 다릅니다.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벨 소리가 없어서 학생들은 저마다 스스로 시계를 보며 시간을 파악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면 보충수업을 안 하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함께 좋은 반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지만, 수업 밖의 생활에서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그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여덟 시에 한국친구와 같이 공부하고 자주 한국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에는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사적(史蹟)공원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한국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러시아 친구의 생일 때는 다 같이 즐겁게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글쓰기 대회를 할 때는 따로 정해진 장소가 없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글쓰기를 했는데 이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추석날에는 한국 친구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윗사람과 대화할 때 자주 존댓말을 잊어버려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창피했던 일은 한 아저씨가 “지금 중국의 주석(主席)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답을 못 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창피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대천(大川) 바다에 수련회를 갔을 때는 친구들과 같이 마음껏 놀았습니다. 바지가 젖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 날은 교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축포를 사 주셔서 불꽃놀이도 했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는 동안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희망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전주에 현장체험 가서는 직접 김치도 만들어 보기도 했으며,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견학했을 때는 한국 역사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주의 수련원에서 열린 MT에도 참석하여 줄다리기를 하며 서바이벌 놀이도 하고 유희 프로그램을 즐기며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에 여행 갔을 때 가졌던 추억도 잊지 못합니다. 유명한 경복궁에 갔을 때는 마침 궁궐 수문장(守門將) 교대식(交代式)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옛 병사들의 군복은 입은 그들의 행렬이 볼만 했습니다. 정말로 기세가 굉장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지만 많은 부문이 발달하였고 주위 환경이 모두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기숙사에서 한국학생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한국 동생들은 부지런하고 착합니다. 우리는 장난도 많이 합니다. 외식도 자주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생활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국 동생들과 함께 다음 새해에 한 달 동안 중국을 여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필요한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꿈과 계획으로 우리 젊은 나날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하나?

임명옥
우송한국어교육원 교수

안녕하세요.

무대에서 한국어로 연극하고, 노래하고, 사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잘 한다는 칭찬과 박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동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곳 우송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송한국어교육원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제도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로 유학 오는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한국어 습득은 물론 대학 수학 능력을 배양하여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한국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강좌는 크게 <집중 한국어>와 <교양 한국어>로 나뉘어 있습니다. <집중 한국어>는 테스트를 통해 수준별로 분반하여 수강인원을 1개 반 최대 15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교양 한국어>는 학습자의 한국어 및 전공과목 학습 효율성을 고려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생활과 한국 문화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학>강좌를 개설하여 유학생뿐만 아니라 우송대학 내 외국인 교수들도 한국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 기초 수강 1년 (중국)

집중 한국어 (2-1학기) - (우송 / 1주 15시수)

교양 한국어 I (2-2학기) - 한국어 독해, 한국어 회화 (각 3학점 6시수)

교양 한국어 II (3-1학기) - 시사 한국어, 한국어 쓰기 (각 3학점 3시수)

교양 한국어 III (3-2학기) - 무역 한국어, 한국어 상용한자 (각 3학점 3시수)

교양 한국어 IV (4-1학기) - 한국 신문 강독, 한국어 보고서 작성법 (각 3학점 3시수)

교양 한국어 V (4-2학기) - 한국어 토론, 문화 한국어 (각 3학점 3시수)

본 교육원 한국어 교육과정의 각 과목 내용 및 목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 목	개 요
집 중 한 국 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교육이 통합된 한국어 집중 수업
한 국 어 독 해	'집중한국어'의 연계성 과목으로 읽기, 쓰기가 강조된 수업
한 국 어 회 화	'집중한국어'의 연계성 과목으로 듣기, 말하기가 강조된 수업
시 사 한 국 어	뉴스 및 신문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한 국 어 쓰 기	자신의 생각을 쓰기 형식에 맞게 쓸 수 있다.
무 역 한 국 어	경제 환경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를 말하고 쓸 수 있다.
한국어 상용한자	상용한자를 통한 한국어 어휘 확장 및 고급 글쓰기를 할 수 있다.
한국 신문 강독	한국 신문을 읽고 이해하며 대화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 보고서 작성법	각종 보고서를 쓸 수 있다.
한 국 어 토 론	시사적인 주제를 한국어로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다.
문 화 한 국 어	한국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각을 말하고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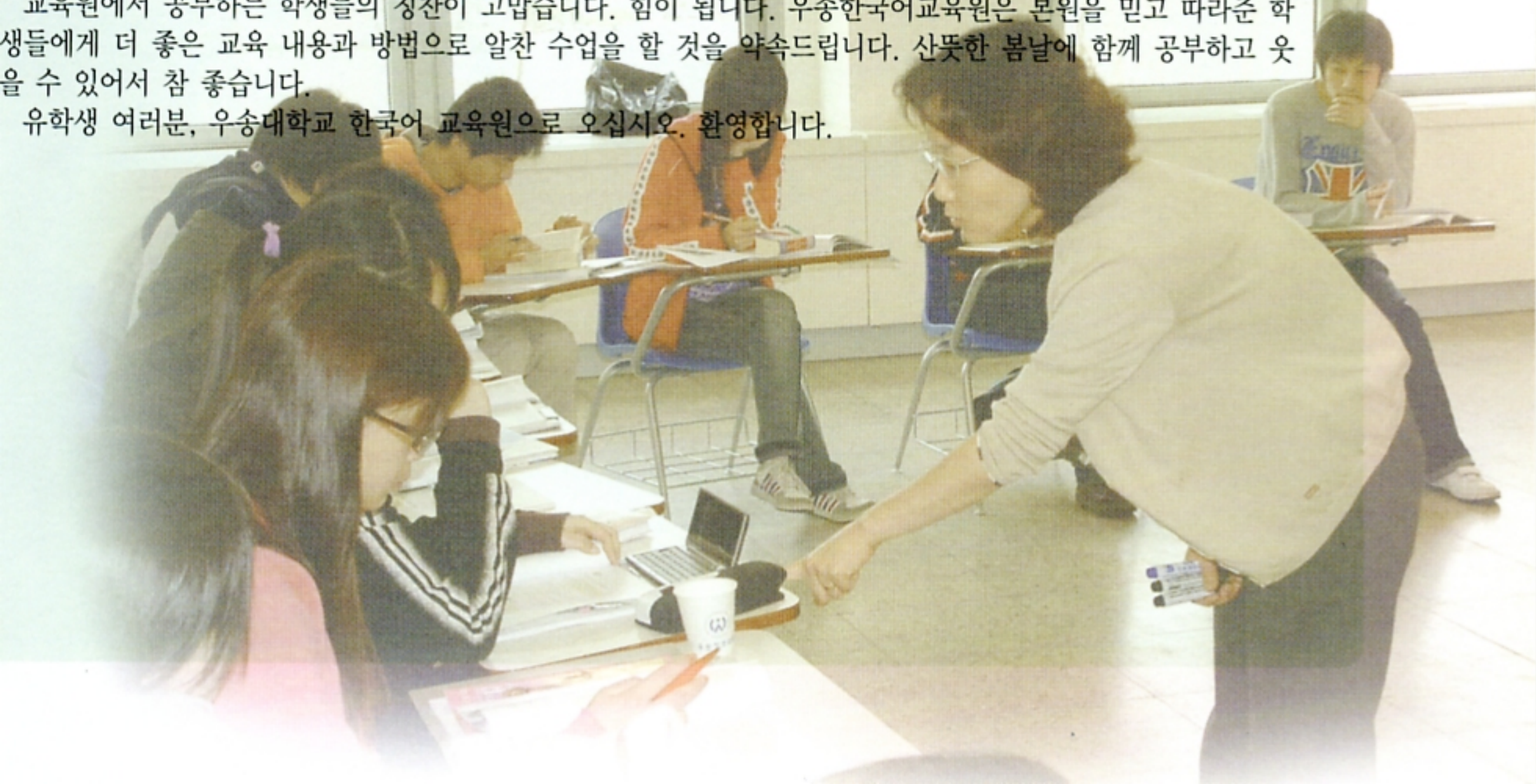
본 교육원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다양하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담당해온 전문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초기 1년간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철저한 담임?부담임 제도를 적용하여 각 반 학생들의 학습지도는 물론 생활지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모든 교사가 참여해 '우송한국어카페'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업 및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노래 동아리, 연극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송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국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하여 교외 각종 대회에 나가 훌륭한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한국말 인증 시험(KLPT)>을 유치하여 대전 충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송대학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작년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현 한국어 수업 중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교육원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서툴지만 열심히 배운 한국어로 또박 또박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숙제 조금만 내주세요."

교육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칭찬이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우송한국어교육원은 본원을 믿고 따라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알찬 수업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뜻한 봄날에 함께 공부하고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유학생 여러분, 우송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으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발자취

- 2005. 8. 28 남경효장학원 학생들 입국(1+3).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 2005. 9. 8 총장님과의 간담회
- 2005. 9. 17 외국 학생들을 위한 추석 페스티벌
- 2005. 9. 29 개교기념 축제
- 2005. 10. 6 한남대학교 주최 전국 외국인 말하기, 글짓기 대회 참가



②



③



④



⑤

- ① 계룡산 등산
- ② 대천해수욕장 수련회
- ③ 서울의 고려대학교 견학
- ④ 경복궁에서
- ⑤ 김치 담그기 체험교육(전주)



- 2005. 10. 11 각 학과별 학술제
- 2005. 10. 15 중국 강소성 주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
- 2005. 10. 21~22 유학생 수련회(대전해수욕장 및 수덕사)
- 2005. 10. 21 <예쁜 손>주최 글쓰기대회 참가
- 2005. 10. 29 외국인 말하기 대회 참가
- 2005. 10. 30 KLPT/B-KLPT 시험
- 2005. 11. 4 중국 산둥예술학원 우송회관에서 문예공연
- 2005. 11. 19 문화체험활동(전주 한옥마을 및 서울)
- 2005. 12. 10 겨울방학으로 많은 유학생들 출국
- 2006. 2. 24~27 중국 유학생 학교로 돌아오다
- 2006. 3. 18~19 각 학과별 MT (국제경영학과/ 무주)
- 2006. 3. 25 독립기념관 견학



- ⑥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 ⑦ 단막극 <심청전> 공연
- ⑧ 외국인을 위한 추석
페스티벌
- ⑨ 한국 전통 예절 교육

친절한 한국 사람들



김 화 자
중국·외식경영학과 2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김화자라고 합니다. 현재 우송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구요. 저의 전공은 국제호텔외식경영학입니다. 여기 한국에 온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에서 한국방송을 많이 봐서 한국 문화도 좀 알고 한국어도 많이 배워서 다행히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의 엄마는 제가 한국에 가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고생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고 여기 아주머니들이 만드는 음식도 맛 있고 또한 친절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대전까지 오는 도중에는 한강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때의 첫 느낌은 공기도 좋고 또한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구요. 제가 이번에 유학생으로 혼자 왔기 때문에 솔직히 외로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한국에 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교수님들도 다 잘해주셔서 별 불편함 없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한국은 어디가든 사람들 마다 인사를 참 잘하시고 그리고 매우 친절하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어가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줘서 외국 사람들에게 왠지 더 친절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일주일 만에 우리 과에서 앰티를 갖습니다. 많이 준비도 못하고 간 상태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온 장기자랑이며 여러 오락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앰티 가서 또 즐겁게 보냈고요. 제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점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한 매너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친하게 사귀어서 서로간의 문화교류도 하고 더 많은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것이며 제가 하고 있는 전공도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한 학생들



빅토리아
러시아·경영학과 3학년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항상 재미있어요. 유학가면 공부하는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문화, 관습,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하바로프스크 철도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했는데, 지금은 우송대학교 경영학부 3학년생이에요. 한국의 교육제도는 러시아와 다르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언어예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재미있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으면서 날마다 회화를 연습해서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저와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한국 음식 어때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고향 하바로프스크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러시아인들도 한국 음식을 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숙사 식당에서 먹는 한국 음식을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의 유학생회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저희한테 마케팅과 e-biz을 가르쳐 주시는 미국 교수님 David Deeds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너무 행복한 학생이에요!". 우송대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인사동, 경복궁 그리고 고려대학교 견학



심령
중국·경영학과 2학년

나는 한국에 유학 온 이래 오랫동안 서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와서, 그에게 우리 중국인 학생 여덟 명이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갔다. 모두들 꽤 흥분했다. 다른 학생 네 명은 서울집으로 돌아가시는 교수님의 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며칠 전부터 최 교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위해 어떻게 버스를 타고, 어디서 지하철을 타며,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가를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교적 순조롭게 서울에 도착했으며 약속장소인 종로 3가 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서울은 과연 서울이었다. 책에서 본 것처럼 교통은 매우 복잡하고, 사람은 대단히 많았다. 또 도시는 아주 떠들썩했으며 활기찼다.

우리는 교수님의 안내를 받으며 인사동 거리, 경복궁, 교보문고, 동대문시장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을 관광했는데 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갔다. 유감스러운 것은, 많은 곳을 짧은 시간에 구경하느라고 한 군데 한 군데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괜찮다.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교통은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가면 된다.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원래 우리들은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었다. 그런데 막상 서울에 가자 적지 않은 친구들이 당일 대전에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 함께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밤 10시 30분, 우리는 무사히 학교 기숙사에 돌아왔다. 이번 서울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최 교수님의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견학한 점이었다. 최 교수님의 후배 되시는 고려대의 강 교수는 교내 곳곳을 안내해 주셨으며,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까지 대접해 주셨다. 고려대학교는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였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그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며 그들이 부러웠다.

무주에서 보낸 즐거운 하루



심조신
중국·경영학과 2학년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무주에 갔다 왔어요. 원래 이틀 동안 지낼 계획이었지만 사실은 하루 동안만 놀았어요. 그런데 이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우리는 3월17일 아침 9시 정각에 학교를 출발했어요. 무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숙소를 배치 받았어요. 우리 남학생 숙소는 청운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유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송대학교의 청운숙과 이름이 똑 비슷했어요. 지난 학기 우리가 대천 해수욕장에 갔을 때도 우송수련관이라는 바닷가 건물에서 잤어요. 혹시 무주의 청운관도 우송대의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국 각지에 우송대의 시설과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우와! 우리 우송대 정말 부자 같아요!

우리 경영학과의 한국학생과 중국학생은 모두 1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는 십개 조로 나뉘었어요. 각 조의 조장들은 다 한국학생들이에요. 우리 조의 조장은 바로 내가 지난 학기에 사귀었던 친구였어요. 다행이다!

점심은 우리 학교 식당과 비슷한 식당에서 먹었는데 음식 맛은 대천에서 먹던 것에 미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저녁때 있는 경영학과 파티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녁 열시 반, 파티가 끝난 뒤, 원래는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교수님들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대신에 각 조별 모임을 가지기를 했어요. 나는 그 기회에 새로운 한국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앞으로도 학교에서는 우리들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잊지 못할 전통예절 교육



손효문
중국·경영학과 2학년

한국에서 유학 온 지 4개월, 그 사이 나의 유학생생활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었다. 지난 주, 우리 한국어 9반 학생들이 대전 동구 문화원에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예절과 다도(茶道)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열 분이 넘는 강사 선생님들은 모두 고운 한복을 입고 계셨으며 한결같이 친절하셨다.

우리는 그분들이 입혀주는 한복을 입고 방석에 앉는 법이며 절하는 법도 등 한국의 전통예절들을 배웠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척 재미있었다.

강사님은 또 한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어, 우리들은 한복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되었다. 틈이 날 때 마다 우리는 한복을 입은 채 사진을 찍었다. 자신이 보아도 한복을 입은 우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교육이 끝난 뒤에도 차마 한복을 벗기 싫었다. 친구들 가운데는 나중 중국에서 결혼을 할 때도 꼭 한복을 입고 싶다는 이도 있었다.

그 다음, 우리는 한국의 전통 다도를 익혔다. 중국에도 전통 다도가 있다. 선생님은 다도를 할 때 부드러운 음악을 들려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그윽하고 고요해졌다. 선생님께서 차 우려내는 법을 알려주신 뒤 우리는 직접 차를 우려 봤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녹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었고 녹차의 향은 참 향기로웠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그 많은 선생님들께 한국식의 전통 인사를 하고, 헤어지기 아쉬운 걸음으로 문화원을 떠났다.

그날의 교육으로 나는 한국 전통 예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재미있고, 한국이 점점 더 좋아 질 것 같다.

한국 학생, 중국 학생이 한 가족이 된 자리



왕선자
중국·경영학과 2학년

지난 주, 우리 경영학부의 전체 학생들이 무주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는 길에는 안개가 심하게 끼었습니다.

도착한 후에 우리는 놀면 놀수록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해마저 감동이 되었는지 태양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서 공기가 정말 신선했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명랑하고 상쾌했습니다. 점심을 자유로이 먹은 후에는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피곤한 마음을 즐겁게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산에 둘러싸인 마을이 경치는 아름다웠습니다. 산속에 마을이 있고, 마을 곁에 작은 냇물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냇물이 예쁘고 물속에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사물이 눈앞에 있는 까닭에 갑자기 이 세상 만물이 있는 자연세계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햇빛은 우리들을 따듯이 비추었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음껏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남학생들은 특히 그 게임에 흥미를 많았습니다. 뜻밖의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나는 뒤편의 잔디밭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항상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 없는 탄환은 저와 같은 착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것이 도망자의 말로였습니다.

저녁에 이브닝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한 게임과 노래는 지금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시 반쯤 모닥불 파티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간 불줄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불꽃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그때가 최고였습니다. 한국 학생이든 중국 유학생이든 모든 사이좋은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같이 과자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새벽 네 시가 되어서야 잠을 잤습니다. 나는 이날의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맺어진 한국 학생과 중국유학생의 친밀한 관계는 중한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부모님들도 놀라 한국의 예절

한국은 세계에서 예절이 바른 나라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말을 처음 배울 때에도 한국에는 높임말과 예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을 해 보니 예절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 여덟 달쯤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학교와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예절 중에는 불편한 것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예절에 대한 얘기는 매우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도 아는 분이 아니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선생님을 만나면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왜 다른 반 선생님께 인사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선생님을 만나도 고개를 들고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어른들께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좋은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걸음을 걷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선생님께서 앞에 걸어오시면 제자리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물론 가까운 선생님과는 손을 잡고 반가워하기도 하고 잠깐 자리에 서서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럴 때면 더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어른에게 인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사예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른에 대한 예절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처음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계신 앞에서 먼저 밥을 먹기도 했고, 선생님이 지나가셔도 고개를 들고 쳐도 보면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생활하면서 차차 몸에 익숙해 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불편해서 다리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른에게만 특별하게 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예절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방학에 중국에 돌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식탁에 앉아서 먼저 수저를 들어서 밥을 먹지 않고 부모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보신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예절도 중요하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먼저 위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손흔
중국·호텔·외식경영학과
2학년

자신감을 갖게 하는 한국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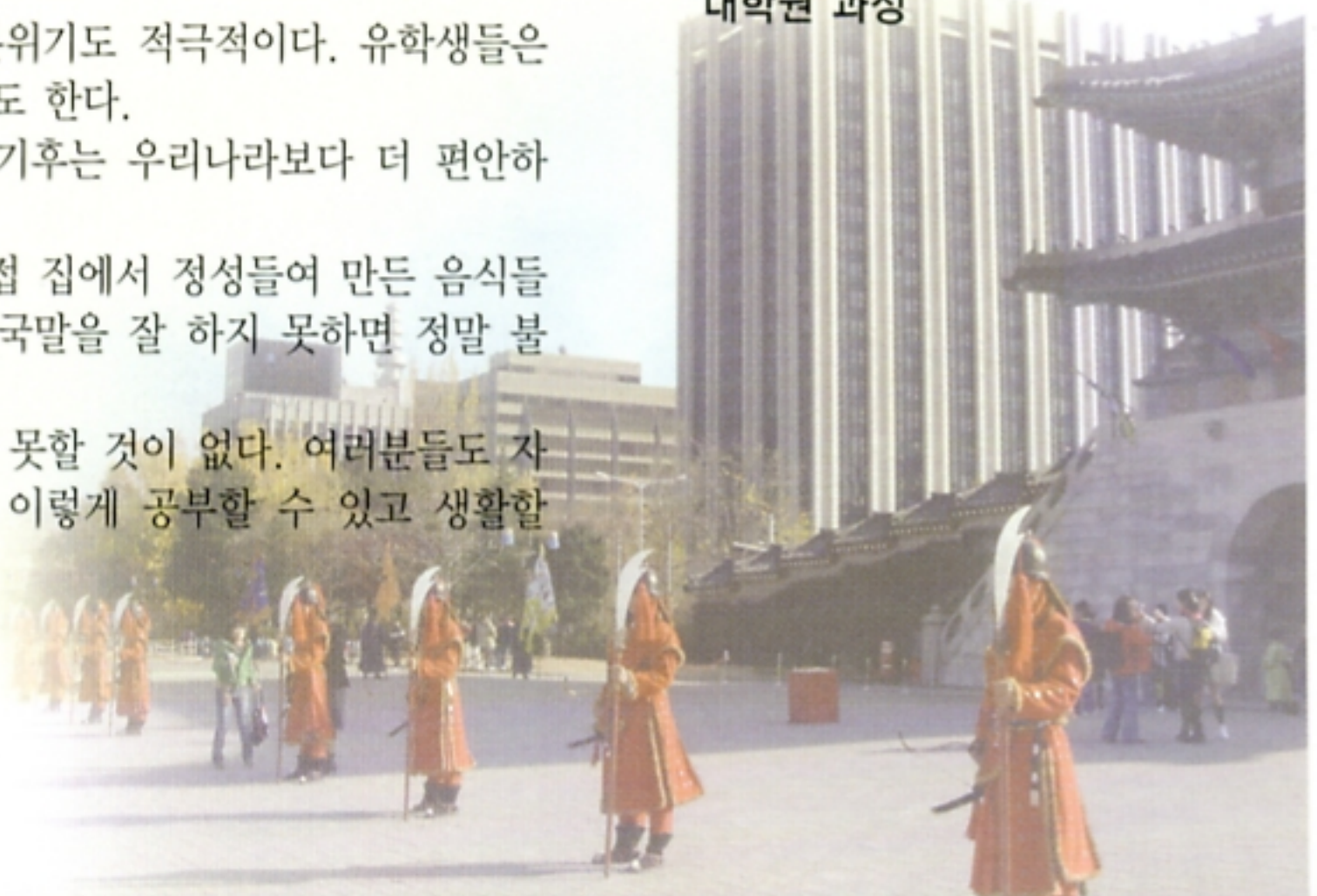
한국, 이곳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고 공부와 생활하는 분위기도 적극적이다. 유학생들은 서로 친절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자주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난 외롭지 않다. 한국의 기후는 우리나라보다 더 편안하다. 그런데 겨울엔 진짜 춥다.

내가 한국음식들을 참 좋아한다. 더욱이 한국 사람이 직접 집에서 정성들여 만든 음식들은 모두 내 입맛에 맞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면 정말 불편하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시간이 따라서 적응하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기 바랄 따름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사시
인도·경영학과
대학원 과정





와타나
라오스·경영학과 2학년

독립기념관 견학

지난 주 토요일, 우리들은 한국독립기념관을 견학했어요. 독립기념관은 한국의 근현대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일본의 침략에 저항했던 한국민의 역사가 고스란히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발전된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많은 한국의 초, 중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러 왔어요.

우리나라 라오스도 한국과 겪은 경험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립기념관에서 남다른 감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독립기념관은 아주 넓은 면적에 건물의 규모도 매우 컸어요. 매 관마다 주제가 있어서 둘러보기도 편했어요. 고대 역사관에서부터 근래의 3.1 운동관, 임시정부관 등등이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이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독립기념관을 견학한 것은 즐겁고도 유익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과거 역사와 현재를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장금은 대학장학금이요?



장영
중국·경영학과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남경에서 온 장영입니다. 지금은 대전에 있는 우송대학교 경영학부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 여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인과의 교류 없이 단어와 문법 등을 오직 책으로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는 '맛있다'와 '멋있다'라는 말을 잘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자주 '그 남자 되게 맛있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합니다.

한국에 온 후에 몇 번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와 MSN으로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한국어 공부와 학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중국에 '대장금'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대장금이 뭐지?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가 한국어 공부와 학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장금'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한국어 공부나 학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장금'이란 아마도 '대학장학금'의 줄임말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중국 학교에도 대장금이 있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저에게 또 대장금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어느 배우를 가장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말한 '대장금'은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역사 드라마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책만 붙들고 한국어 공부를 한다면 요즘 제 또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책으로만 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대장금 전편을 다 보았고 이 영애를 좋아할 뿐 아니라 한국드라마 보는 것을 가장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한국 친구들을 가깝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국의 대학생이라면 모두 사용한다는 '싸이월드'에 미니 홈페이지에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마도 대장금 사건이 저에게 준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도미노,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주영설
중국. 경영학과 2학년

한국은 봄에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봄에 학기가 시작이 되면 학과에서는 MT를 준비합니다. 중국에서는 가을에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떠나는 엠티를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에 한국 학생은 많지만 중국 학생은 다섯 명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원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문화 체험을 해본 적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과 같이 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무주에 도착한 우리는 저녁을 먹고 넓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10명 정도 조를 짜서 시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는 도미노 조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학과의 한국 학생이 도미노 그림을 디자인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디자인의 뜻을 몰라서 저와 중국 학생 한 명은 그냥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도미노 조각을 주면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승대 로고를 딴 글자 'NO.1'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도미노 조각을 세웠습니다. 도미노 게임은 참가한 사람들의 협동심과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로 조각 하나를 건드려서 넘어뜨려도 그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이면서 도미노 조각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처음엔 떠들면서 장난으로 시작한 학생들도 도미노가 세워지고 디자인한 글자가 보이자 모두들 입을 다물고 도미노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큰소리로 박수를 치며 옆에 있는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정성껏 만든 작품이어서 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의 손을 잡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조는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장이 도미노 한 조각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그동안 정성을 들여세웠던 도미노가 파도처럼 소리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도미노 조각이 디자인한 글자를 보이며 넘어졌을 때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흥분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도미노 게임은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엠티를 통해 한국 학생들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낯선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를 해주는 모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시

나비

나비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때
조용한 바람
힘을 보태고



임훈남
중국. 경영학과 2학년

나비
초원위로 날아오를 때
푸른 초원
힘을 보태고

나비
꽃 위로 날아오를 때
꽃잎이
힘을 보태고

나비
태양 위로 날아오를 때
찬란한 태양
힘을 보태고

나비
세상을 향해 날아올라
바람, 초원, 꽃, 태양이 전하는 선물
세상에 뿌려

아름다워 지는 세상

용감히 흔드는 날개
마음에
뿌려지는 희망

“언니 눈의 ‘삼겹살’이 너무 예뻐요”



육성영
중국, 영어과 3학년

아마도 나는 전생에 한국인이었을 것이다. 내 일생의 대부분이 한국과 어떤 특수한 연분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한국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한국인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이것이 바로 나다.

나는 한국에 온지 2년 정도 되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 4개월간 한국어를 배웠지만, 제대로 익히지 못한 탓인지, 한국말을 할 때면 웃음거리가 된 적이 많았다. 처음으로 겪은 실수는 버스 안에서 생겼다. 중국에서 버스를 타면 내려야 할 곳에서 벨을 누르지 않아도 버스가 정류장 마다 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나는 한국도 중국과 같은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 가까워졌을 때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내가 탄 버스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기사아저씨에게 내려달라고 했다. 나중에 아저씨가 문을 열어줘서 내리긴 했지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한국의 버스는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한국의 버스는 벨을 눌러야 내릴 수 있구나!’

두 번째 실수는 별명 때문에 생긴 재미난 일이다. 나는 한국 언니들과 함께 청남대로 놀러 가게 되었다. 청남대에 도착해서 주위 경관을 둘러본 뒤에 우리는 배가 출출해지고 다리도 아파서 앉아서 밥을 먹기로 했다. 밥을 먹으면 우리는 주저리주저리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는 한국 언니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한국말을 뽐내고 싶었다. 그래서 언니의 예쁜 눈을 칭찬하려고 이렇게 말했다.

“언니 눈의 삼겹살이 너무 예뻐요.”

‘쌍꺼풀’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삼겹살이라고 잘못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언니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언니들 입에서 갑자기 ‘푹’ 하는 소리와 함께 음식물이 튀어나왔다. 난 영문도 모른 채 언니들을 바라보았다.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이후로 언니들은 나를 ‘삼겹살 성영’이라고 재미있게 부른다. 또 한 실수는 수업 시간에 있었다. 나는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 옷에 구멍이 난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친구에게 ‘구멍’이 났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당황해하며 집에 가서 갈아입을 옷을 찾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구멍이라는 한국말을 몰라서 “옷에 dong이 나서 친구가 집에 갔다”고 했다. 그러자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나중에 옷을 갈아입고 옷 친구가 나에게 막 뭐라고 했다. 왜 그렇게 말을 했냐는 것이었다. 나는 중국말로 구멍이 ‘dong’ 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중국말 ‘dong’을 한국말 ‘똥’으로 친구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한국이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에 와서 나는 처음에 힘이 들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기는 재미있는 일로 인해 한국 생활이 너무 즐거웠다. 내가 겪은 많은 실수들 역시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감기 때문에 ‘김치’가 심해요”



성매령
중국, 경영학과 2학년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됐다. 이제 한국생활이 많이 익숙해졌다. 그렇지만 온 지 얼마 안 되는 작년에는 한국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하루는 감기에 걸려 기침이 심했다. 하는 수 없이 약국에 갔다. 처음 약국을 찾아 가서 그런지 몹시 긴장됐다. 약사가 먼저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긴장한 가운데 “김치가 심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대답했다. 약사가 “김치를 싫어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때 약사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 정말 죽고 싶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바디랭귀지로 내 의사를 나타냈다. “아네요, 기침이 좀 있어요...”,

“기침, 기침... 잘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그날의 기억입니다.

●●일기●●

오서
중국·국제경영과 2학년

2006년 2월 7일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이다.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내 여자친구가 중국에서 나한테 선물을 부친다고 한다. 교수님, 그날의 유래를 아세요?

서기 3세기 무렵의 로마. 폭군 클라우디우스가 집권했을 때, 전쟁이 많아서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다. 하지만 자신의 역량을 넓히기 위해 일정 나이가 된 남자는? 꼭 군대에 들어가야 했다. 그 후, 남편이 아내를 떠나고 청년이 애인을 떠나 전장으로 나간다. 그 바람에 전국이 사랑과 이별의 정조로 뒤덮혔다.

화가 난 폭군은 결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폭정은 남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즈음, 왕국에는 덕성과 명망이 높은 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발렌타인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비밀리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연인들을 도와? 결혼식을 올려 주었다. 그 소문은 곧 전국으로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그 일은 곧 폭군의 귀에도 들어가 수사를 처형하게 된다. 수사가 죽던 그날이 2월 14일, 서기 270년 2월 14일의 일이었다....

ㅋㅋ, 너무 힘들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서 여자친구를 위한 초콜릿을 산다.... 교수님, 그날은 꼭 사모님께 선물을 주세요(초콜릿과 생화 등도 돼요). 히히히. 안녕히 주무세요.

2006년 2월 14일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며칠 동안 일기를 안 써서 교수님께서 화 나셨어요? 히히, 죄송합니다. 저는 감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고 싶었습니다. 남덕유산은 잘 다녀오셨어요? 재미 많이 있었어요? 저는 계속 기숙사에만 있어요. 심심해요.

오늘도 평소처럼 그렇게 잠도 늦게 자고 오후에 일어났다. 습관적이다. 어제, 나는 감기가 다 나았는데 뒤늦게 내 친구 명택이 감기에 걸렸다. 모르겠다, 혹시 내 감기가 그에게 옮긴 것은 아닐까? 히히,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재미있다. 잠시 후면 발렌타인 데이다. 여자친구랑 같이 채팅하고 게임도 할 예정이다. 기분이 좋지만 걱정도 있다.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어제는 여자친구랑 밤을 새면서 이야기 하자고 약속했다. 어떡하나? 히히, 명택의 목소리가 옆에서 난다 ㅋㅋ.

2006년 2월 20일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방황한다. 또 두려워한다. 다음 학기에 대한 계획이 아직 하나도 없다. 어떻게 지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근로학생의 일을 맡아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 그들은 나를 질투할까, 미워할까? 나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무척 걱정이 된다. 나는 게임을 할 때, 잠을 많이 잘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죄책감을 느꼈다.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학생을 일컬어 한국말로 '날라리'라고 한다지요, 교수님?). 나는 이 죄책감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오늘, 몇 명의 중국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호준이도 왔다. 중국에서 가져온, 진공 처리된 쇠고기를 같이 먹었다. 맛있구나...! 오랜만이다. 이 중국 맛! 며칠 후면 다른 친구들도 다 돌아올 테니 즐겁게 같이 놀 수 있다!

요즘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봤다. 재미있었다. 거기에는 인생의 철학도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예절도 좀 배웠다. 나도 의사가 되고 싶다. ㅋㅋ. 드라마 보느라고 또 며칠 동안 일기를 쓰지 않았다. 교수님께서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겠지요?? 히히.

교수님, 오늘 이것이 방학동안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원래 교수님께서서는 바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방학동안 이곳에 남아있는 저희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시고, 직접 저희들 일기를 손봐주시고, 저희가 외롭지 않도록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랄 따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중국 남경(南京) 효장대학(曉庄大學) 소식]

· 2005 가을 제 1학기

* 2005년 신입생 군사훈련

신입생들의 의지를 단련시키고, 군인과 같은 강인한 기백을 배양하기 위해서 신입생 입학 후 10일 동안의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군사훈련 중 신입생들은 중국의 '4대 화로'라 불리는 남경의 폭염 아래에서 부동자세, 제식 훈련, 군대식 구호 복창 등 모든 훈련과 교육을 성실히 수행해내어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훈련이 마무리되는 석양 무렵에는 군가를 부르고 춤을 추며, 효장학원 입학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표현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 버렸다.

이어 9월 28일, 본교 방산캠퍼스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는 질서정연한 제식동작,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와 구호소리로 신입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었다.



'도행지 탄신 114주년 기념'

문화·예술 문학작품전에서

본 대학생들 1, 2, 3등상 및

단체상 휩쓸어

위대한 교육가 도행지 선생(효장학원 설립자) 탄생 114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작품전이 열렸다. 본 대학 학생들은 문학·서예·예술 등 부문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 부문별 최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미술부문 1등 탕용(중한 5반), 진소교(중한 5반)

서예부문 1등 우천(중한 4반)

문학부문 2등 손전(중한 2반) 진개예(중한 1반) 왕려경(응용한국)



* 문예합동공연 대합창 '我和我的祖' 3등상 수상

11월29일, 방산캠퍼스 중심광장에서는 '조국의 노래'를 주제로 혁명 가곡 합창대회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총장과 당서기를 비롯 2백여명 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하여 높은 수준의 공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본 대학은 3등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4회 음식문화제 열려



학·중·영어 말하기 대회

본 대학 동방문화국제교류학원에서는 지난 4월 11일 브리핑 홀에서, 캠퍼스 내의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 제공,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 고취, 학생의 학습에 대한 열의와 적극성을 북돋우는 한편, 학생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듣기와 말하기 등 발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 명예, 세계'와 '애국, 애교'를 주제로 전교생 대상 중국어, 한국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본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격양된 표정과 어조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앞으로 펼쳐질 한국 유학생생활 등에 대한 설레임을 얘기했다. 또한 이 대회에는 여러 명의 외국 유학생들도 참가하여 중국에서의 생활과 효장학원에서의 공부에 대한 진솔한 얘기들을 전해 주었다.



생활 속에서 찾는 멋

요즈음 친구는 나에게 자신이 못 생겼다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좋고 키도 크고 머리가 길고 웃을 때 너무 귀여운 여학생입니다. 왜 그녀가 수술을 해야 합니까? 그럼 '미'란 무엇입니까?

어쩌다 일류호텔의 로비나 변화한 거리를 지나다 보면 멋있는 여자와 주눅이 들릴 정도로 잘 생긴 남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체격이 뛰어나게 잘 생긴 것도 멋있는 일입니다. 유행과 체격에 맞추어 웃을 잘 입는 것도 멋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멋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삶의 맛을 더하는 길이겠지만, 자신의 생활 속에 멋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장연청
남경효장대학 중한 3반
국제경영 전공

남경효장대학에서 만난 내 새 가족들



영리
남경효장대학 중한 4반
컴퓨터디자인 전공

저는 작년 9월 남경효장대학교 기숙사에서 일곱 아가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일년 동안 같이 살게 되었어요. 올해 8월에는 함께 한국의 우송대학교에 갈 거예요. 그럼 그녀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키가 작고 귀여운 아가씨가 변위예요. 변위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인사를 드리고 학교 얘기를 해요. 변위는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들도 변위를 참 좋아하셔요. 그리고 변위는 아주 부지런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해요.

키가 좀 크고 날씬한 아가씨가 배효예요. 배효는 참 예뻐요. 그녀도 열심히 공부해요. 배효는 기숙사에서 네 달을 살았는데 지금은 언니 집에 살아요. 하지만, 매일 오후에는 우리 기숙사에 와서 함께 이야기 합니다.

머리를 묶고 눈이 좀 큰 아가씨가 제 좋은 친구 척소예요. 척소는 공포영화와 소설을 좋아해요. 척소는 참 재미있는 친구이에요. 지난 학기에는 좀 통통했는데 지금은 좀 날씬해졌어요. 사실은 남자친구가 생겨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예뻐졌어요.

생머리에 안경을 쓴 친구가 상려화예요. 그녀는 참 착해요.

그리고 키가 작고 노란머리에 파마를 한 아가씨가 성혜예요. 그녀는 참 귀엽고 예쁜 친구예요. 성혜는 키가 작기 때문에 높은 구두를 신습니다. 그녀는 우리 반의 공주예요. 상려화와 성혜는 백화점에 자주 가요. 유행하는 옷들과 신발들을 많이 사요.

또 짧고 노란머리에 파마를 한 사람이 윙휘예요. 그녀는 요즘 유행하는 안경을 씁니다. 윙휘는 남자 같은 여자예요. 컴퓨터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잘 해요.

아직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저예요. 저는 키가 좀 크고 생머리예요. 저는 운동을 참 잘해요. 그리고 한국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조용한 것을 좋아해요. 방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소설책을 읽고 있으면 아주 즐거워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만난 일곱 가족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우리 집도 참 좋아합니다.

화목한 우리 가족



엄연란
남경효장대학 중한 3반
관광경영 전공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제 고향은 강소성 소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소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안 일을 돌보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올해 똑같이 43세입니다. 두 분은 동갑이셔서 그런지 싸우기도 자주 하시지만 서로 매우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금 남경효장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한국에 가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매우 서운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주말에 자주 여행을 갑니다.

항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항주에 있는 서호는 매우 유명하고 아름다워서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호수에서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가족은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 자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활동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까지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래동아리

한국 가요를 함께 부르는 곳입니다. 노래를 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좀 더 즐겁게 한국어도 익힐 수 있습니다. 어느새 자신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극동아리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위에 서서 한국 사람이 된 듯 한국어로 연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멋지지요? 대단한 사람만이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극 동아리에 있는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우리의 첫 작품은 'B사감과 러브레터'이며, 지도교수님의 지도하에 데사도 연습하고 연기도 준비해서 가을에는 공연도 합니다. 기대하세요!

●●편집후기 ●●

- * 드디어 작품모집이며 편집 일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편집장의 중책까지 맡아서 삼 주일 정도 힘들게 일을 하였지만, 이를 통해 책임감을 기르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 심조신
- * 어려운 일도 친구들과 힘을 합하면 쉽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더욱 자신감을 갖는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뉴스레터는 더욱 잘 만들겠다.- 심령
- * 모두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했다. 좋다.- 주영설
- * 편집 일을 끝낸 뒤의 기분이 너무 좋다. 최 교수님, 이제 우리 술 마시러 가요! - 호박
- * 이번 경험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곽광걸



- 지도교수 : 최학
- 편집장 : 심조신
- 편집위원 : 심령 주영설 곽광걸 호박

To be global leaders by Korean Language !!

즐거움, 만족, 보람이 함께 하는
우송한국어교육원

우송대학교 부설 우송한국어교육원은 유학생은 물론 연수생, 직장인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우송한국어교육원은 기초한국어에서부터 생활 한국어, 시사 한국어, 고급 한국어까지 모든 과정을 교육합니다.

우송한국어교육원은 가장 흥미로우며, 가장 경제적이며, 가장 과학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용으로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만족을 드립니다.

우송한국어교육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15명 미만의 소규모 클래스를 운영하며, 경력이 풍부한 전문 교수진에 의해 개인의 특성과 소양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우송한국어교육원은 충남,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능력시험(KLPT)을 시행하는 공인 교육기관입니다.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55-3
Tel: 042) 629-6697. 629-6698

